



남을 배려하는 마음

김보성/한국민족음악인협회 사무총장

중 게 말하면 21세기 인간형인 나는 가끔 내가 누군지 궁금할 때가 있다.

작곡가로서 민족음악을 고민하는 협회의 예술행정을 책임맡고 있으며, 수도권 도시의 문화정책전문위원으로 또 그곳의 국제영화제 사무국 부국장으로 한시적 조직관리를 맡고 있다. 그리고 연구소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면서 대학교와 대학원에 출강도 한다.

달력의 빨간 날은 최대한 1여 1남의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충실하려고 노력도 한다.

이 모든 일을 한 마디로 표현한 나의 직업은 '문화기획가'이다.

바쁘게 살면서 특히 '노래를 찾는 사람들' 대표로('92~'96) 무수한 공연기획을 하며 전국을 다니면서 내 나름대로 터득한 '기획활동'의 본질은 바로 '남에 대한 배려'임을 깨닫게 되었다. 개성이 강해 괴짜하기까지 한 예술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까지 나는 무수한 갈등과 고민을 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그들이 무대 위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그것과는 너무도 달리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순도 높은 에너지를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일이 가능했다.

진정한 예술가들이 무대 위에서 혼신을 다하게 하는 일은 그들에게 높은 개런티를 보장해주는 것 보다는 뒷 무대 혹은 대기실에 물 한 잔이나 기본 편의물품이라도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진심으로 배려하는 일에서 더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의 결과가 무대 위의 열정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었다. 또 내 자신의 기획이 예술을 훼손시키고 예술가를

소모시키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옛 선생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더 오랜 세월이 지나서였다.

'지식이 부족하면 보충하되 과잉하거든 신중하라', '남이 할 일을 자기가 하려 하지 마라' 그리고 '매스컴을 매수하려 하지 마라. 그보다 항상 매스컴을 돕는 마음을 가져라'고 가르치던 그 모든 말씀이 결국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공연과 행사를 기획함에 있어서 늘 관객의 입장에서 공연장 분위기와 연출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일 것이고, 그러한 기획이 늘 사회와 나라, 그리고 세계에 이익이 되게 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일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민족의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흡수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될 수 없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용시설을 우리 동네에 두면 집 값이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사회적 병리현상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한 탓 일 것이다.

혹시 공연장에서 '관객이 감동할 뒤통자 무대 위의 예술가가 독점해버려 예술가의 장기지랑으로 끝내버리는 공연인 경우, 객석을 털며 일어날 때 그 허전한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전통 수목회에서 나타나는 여백의 미란 결국 감상자의 뒤통에 대한 배려이지 않을까. 우리 사회도 남을 배려하는 여백의 풍성함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을까.

21세기가 정보화, 인터넷의 시대라는데, 무수한 유용한 정보가 독점되지 않고 공유됨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창조적 에너지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세상을 나는 언제나 꿈꾼다. '독점 아닌 공유는 곧 남을 배려함' 일 것이다. 나는 공유됨으로써 모두가 풍성해지는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이고 싶다.